금주 법구

도가 가까우면 이름이 드러나서
높은 산의 눈과 같고,
도에서 멀어지면 지혜가 어두워서
밤에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

-법구경-

현대불교

대표전화 02 737 8881 구독문의 02 737 000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7월 25일 수요일(주간) 제 328 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퇴임 교수들 값진 회향

"포교는 퇴임 불자 교수의 몫입니다. 이 일에 관심을 가진다면, 노후의 삶이 무척 보람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륜불자교수회보〉 제18호에 '인연 따라'를 기고한 곽종현 전 경상대 교수의 이 말은, 곽 교수가 불교학이 아닌 축산을 전공했고 퇴임 후에 더욱 신행의 고리를 더욱 단단히 잡고자 하는 대표적 지식인 불자라는 점에서 신행이 부족한 지식인 불자들에게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다.

교수라는 신분 때문에 퇴임과 함께 신행 활동에 몰두하기보다는 자신의 학문적 회향에만 매달리기 십상인데 곽 교수는 이보다는 '신해행증'을 다지는 일에 주력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

곽 교수는 99년 정년 퇴임과 함께 26개월째 송광사에 머물며 포교에 나서고 있다. 조계총림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불일회의 사무총장도 맡아, 기금 관리에서부터 법회나 수련회 등에 회원들의 참여를 권장하는 일까지, 불일회와 송광사의 모든 대소사에 관여하니 몸은 학교에 있을 때 못잖게 바쁘지만 전적으로 부처님 일에 매달리는 것이 행복하다고 토로한다. 곽 교수는 송광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송광사의 역사와 불교를 알리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곽 교수는 "사람들이 절에 올 때는 무엇인가 알려고 왔을 것이니, 이를 돕는 게 불자의 도리가 아니겠냐"며 "관광객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일이 즐겁다"고 말한다.

그런데 대구 및 경남북 지역 불자 교수들의 모임인 '법륜불자교수회'에서는 이런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다. 박종욱, 예종숙, 김주곤 교수 등 퇴임 교수들이 불자교수회에서 갈고 닦은 신행의 고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

경영학을 전공한 박종욱 전 영진대 교수는 98년 정년퇴임과 함께 개소한 '생명의 실상연구소'를 운영하며 도심 속 아픈 중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다. 불교를 통해 현대인의 마음 병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박 교수는 이 일을 위해 퇴임을 3년이나 앞당겼다. 또한 국문학을 전공한 예종숙 전 영남대 교수와 김주곤 전 경상대 교수도 수필과 강연으로 불교의 생활화를 이끌고 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엘리트 불자들일수록 '불교지식'은 많은데 불법의 실천이나 신행 활동에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지식인 불자로서 살아온 삶을 포교로 회향하는 불자 교수들의 신행이 돋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오종욱(취재 1부 기자)

장 군 죽 비

◇중앙승가대의 앞날에 먹구름 가득. 재정난에 총장 스님까지 사의 표명. 미래를 준비할 줄 모르는 한국불교 고질적 병폐의 축소판. (2면)

◇ '배워서 남 줄 수도 없는' 한국 여성들의 권한 최도 후진국 수준. 아직 한국에서의 남녀평등은 '말로만'. (8면)

◇생태계의 보고이자 천혜의 수행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경남 양산시 천성산. 지자체의 관광지화에 눌려 압살 위기. (9면)

◇불자들의 사후 화장 비율이 기독교계보다 낮다. 일제가 공(空)임을 설파한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실의 괴리는 아득히 멀다. (23면)

신행단체 고령화 심화

불일회 · 삼보회 · 구도회 등 회원 대부분 50~60대

"청소년 캠프-직장인 참선프로 활용 등 대책 필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불교계 대표적인 신행단체들의 고령화 현상이 심해져 '젊은 피 수혈'이 시급한 상황이다. 불일회, 삼보회, 보림회, 구도회, 달마회 등 20~30년 이상 재가불자의 법회와 공부를 이끌어 온 대표적 신행단체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회원들은 대부분 50~60대 후반 연령층.

지난 64년 창립돼 60, 70년대 경전 강독과 법회로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섰던 (사)삼보회(이사장 윤정기)는 현재 주로 활동하는 회원 100여 명 중 50, 60대 회원이 80%를 차지할 정도다. 74년 창립돼 초기만 해도 대학생 불자들이 적극 참여했던 구도회(회장 정병조)도 이제는 젊은 사람들 찾기가 힘들다. 구도회 서울지부의 경우 200여 회원 중 과반수가 60세 이상이다. 65년 발족한 불일회(회장 조달공)와 70년대초 발족한 보림회 역시 기존 회원들은 나이를 먹고 청년들의 수급이 잘 되지 않다보니 현재 활동 회원 70%가 중 장년층이다.

물론 이들 신행단체들도 나름대로 애를 쓰고는 있다. 삼보회와 구도회는 어린이 법회에 관심을 쏟고, 보림회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참선 프로그램을 강화해 단체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그러나 이는 소극적인 대응일 뿐 청년들이 적극 영입될 수 있는 계기는 되지 못하고 있다.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는 경전 강독이나 단조로운 정기 법회 등은 첨단시대 신세대 청년들에게 전혀 흡인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이런 점에서 창립 10주년을 맞는 우리는선우(이사장 박광서)와 19년이 되는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 등의 활동이 주목된다. 청년 불자들에게 개별 사업을 주고,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일로 청년들의 영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매년 개최되는 청소년 캠프를 바로 청년 불자들이 주도하게 하는 등 단체에서의 주인의식을 고양시키고 있다.

동산반야회 김재일 회장은 "젊은 신행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회원 모집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신입 회원들의 연령층에 맞춘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며 "회원들의 결속만 강조할 경우 자칫 젊은 불자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옛모습 되찾은 거조암 5백 나한

27일 개채불사 회향법회

영천 은해사 산내암자인 거조암 영산전(국보 14호)에 모셔진 석조 5백나한이 채색을 다시 올리는 개채(改彩)불사로 창건 당시의 모습을 되찾았다. 고려시대 조성된 거조암 5백나한은 원래 자연그대로의 석조불상이었으나 55년전 누군가에 의해 하안석회가 입혀지면서 원형을 잃었었다. 거조암 주지 돈명스님은 "27일 개채불사 회향법회와 고려불상 재현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태고종 분종 위기

총무원-반대파 9명 중징계

준비위-이달내 승려대회 개최

태고종(총무원장 혜초)이 창종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10일 발족한 '태고종 종단 바로세우기 연합 승려대회 준비위(이하 승려대회 준비위)'가 현 총무원장 혜초스님 체제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서자 총무원장 혜초스님은 인곡, 혜화스님 등 승려대회 준비위측의 핵심인물 9명을 전격 정직(停職, 일정기간 동안 승려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징계) 시키는 중징계를 했다. 이에대해 승려대회 준비위측은 "징계는 무효이며, 전국승려대회를 이달안으로 열어 초법적인 차원에서 종단을 바로 세우겠다"고 맞서고 있다.

혜초스님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 집행부를 무너뜨림으로써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여 종권을 재창출하려는 의도를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실리를 추구해 왔던 세칭 '7인방'은 모든 종단 공직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승려대회 준비위'도 19일 창신동 원각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정원장 등 종단의 중진 스님 징계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만행"이라고 규탄하고 "종단을 불화로 몰고간 장본인들은 신성한 중앙불교회관 총무원사에서 물러가라"고 촉구했다. 한편 前 총무원장 인곡스님은 "보건공제회, 신협 등 본인과 관계되었다고 총무원이 발표한 '비리'는 전부 유언비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경숙 기자

'비폭력문화 정착 대책위' 구성

50여 불교단체 합의

조계종 내외의 폭력성을 뿌리 뽑자는 여론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50여개 불교단체들이 가칭 '비폭력 문화 정착을 위한 불교단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포교사단,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참여불교재가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등의 대표들은 18일 모임을 갖고 24일 오전 7시 서울호텔에서 불교단체 대표자 회의를 열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에는 50여 단체가 참여할 전망이다.

참석자들은 선원 수좌들의 하안거가 끝나는 8월 4일까지 해암 종정스님을 비롯 원로회의, 중앙종회, 총무원, 선원, 율원, 강원의 대표자 등 원로-중진 스님들을 면담 비폭력 문화 정착을 위한 종단적 대책을 청원키로 했다. 이들은 또 8월 16일 불교계 지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종단의 비폭력 문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중앙종회 종단폭력근절대책소위원회(위원장 지광)는 16일 해인사와 실상사를 방문해 해인사 선원 수좌들의 실상사 난입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25일에는 신흥사와 백담사를 방문해 최근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 조사한다. 소위는 동국대 비구교수의 폭행사건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폭력근절소위 위원장 지광스님은 "각 사안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친 뒤 8월말 종회개원이전까지 보고서를 작성해 종단폭력 근절을 위한 법 제정 등의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원우 · 김재경 기자

자연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가자! 부다피아 캠프

태안반도 · 안면암 · 간월암 등지서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앞날의 주인공이 될 새싹불자를 키우기 위해 제 4회 부다피아 어린이 여름캠프를 엽니다.

무인도가 그림처럼 펼쳐진 기도도량 안면도 안면암, 백제의 미소가 아름다운 국보 서산 마애삼존불, 철새들의 낙원 간월암, 태안반도국립공원의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면서 건강하고 맑은 신심을 길러주게 될 부다피아 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서해안의 갯벌탐사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는 등 멋지고 신나는 부다피아 캠프에 많은 어린이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일 정 : 2001년 7월 30일(월)~8월 1일(수) 2박3일
◇장 소 : 태안반도 국립공원 안면도 안면암, 간월암, 서산마애삼존불
◇대 상 : 초등학교 1~6학년(선착순 200명)
◇참가비 : 5만원
◇준비물 : 점심 도시락(당일), 수영복, 수영모자, 필기도구, 그림도구, 세면도구, 보포

※출 발 : 30일 오전 9시 조계사 / 도착 : 8월 1일 오후 5시 조계사

◇문 의 : 전화 02-722-4162, 016-292-1987
◇은행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주 관 : 선재이벤트

협 찬 : (재)보덕학회, 현대불교 신수회, 불교 레크리에이션 협회
후 원 : 조계종 포교원, 진각종 통리원, 조계사, 한마음선원, 봉은사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되어 주역 • 풍수지리 • 사주명리 • 관상학과 유 • 불 • 선의 심오한 사상을 알기 쉽게 실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애독하는 국내 유일의 동양학 전문지로 99년 11월 1일 문화관광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훌륭한 잡지입니다.

2001년 1월호에는 풍수지리의 기원과 역사, 본질을 논하는 「풍수지리란 무엇인가」를,
2월호에는 주역을 활용한 「역점64」를,
3월호에는 「철판신수」와 「법륜공」, 「사찰과 조선의 왕릉 풍수학설」을,
4월호에는 「불교란 무엇인가」를,
5월호에는 「음달의 산소이장법」을,
6월호에는 「조선의 우격」을,
7월호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의 풍수지리 해설」을 특집으로 실었습니다.

누가 풍수지리를,

사람마다 학설이 다르니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풍수지리…

이젠 당신이 관룡자로 직접 명당을 찾으세요.

관룡자란?
심룡척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이미 2천여년 전부터 중국의 황실에서 궁궐터를 잡거나 황제의 묘터를 잡을 때, 기존의 터를 감정할 때 은밀히 사용되며 명나라 말까지 전수되어 오던 명당탐지기이다. 그러나 명나라이후 그 비전이 단절되어 계승되지 않았으나, 「월간역학」을 발행하는 한국의 진산실업(주)에서 장기간의 연구 끝에 복원에 성공하여 77만원에 공급하고 있다.

어떻게 사용하나?
주택이나 아파트, 빌딩, 사찰등 건물의 신축이나 기존 건물의 터를 감정할 때, 또는 산소나 납골당, 가족 납골당의 터를 잡거나 기존의 터를 감정할 때, 관룡자를 사용하면 명당에서만 발산되는 특별한 지기(地氣)에 반응하여 지기가 흐르는 명당혈의 방향을 가리키므로, 터를 잡는 것은 물론 건물이나 산소의 방향(좌향)까지 잡을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교수, 사업가, 전문 경영인, 법률가, 종교인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실험 후 경탄을 금치 못했으며, 이미 국내의 저명인사 200여명이 활용중인 제품이다.

명당이란?
명당의 현대적 개념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지구는 남극과 북극이 자장(magnetic field)을 띤 거대한 자석으로 23.5° 기울어진 상태로 끊임없이 자전과 공전을 하며 음(-) · 양(+)의 전하(electric charge)가 발생된다. 음 · 양의 전하가 균형을 이루어 음양이 조화된 땅으로 특별한 지기인 생기가 발산되는 곳이 명당이다. -월간역학 1월호 중에서 부분발췌-

관룡자의 원리
관룡자는 -전하나 +전하중 한 기운만 작용하는 곳에서는 평형을 유지하지만 음양이 고르게 조화를 이룬 곳(명당 혈)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지기에 의해 옆으로 회전하도록 합금된 센서를 장착하고있다. 또한 관룡자는 수맥에서는 작동치 않고 반드시 명당 혈에서만 작동하므로 믿을 수 있다. 오랜동안 번성해온 사찰의 대웅전, 성당, 명당으로 알려진 번성한 가문의 유명한 묘지에서는 관룡자가 틀림없이 작동되는 현상이 이것을 입증한다.

구입방법
한빛은행 064-301374-13-001 진산실업(주)로 77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자세한 사용 설명서와 함께 즉시 택배로 안전하고 빠르게 보내드립니다. 구입자에는 「월간역학」1년간 무료 기증. (신용카드 24개월 분할 가능)

● 월간역학 1년 정기 구독료는 9만원이지만 지금 신청하시면 7만5천원으로 할인+수맥탐지봉 1세트 무료 증정.
● 월간역학은 지난호도 모두 정가 판매합니다만, 지금 신청하시면 '99년 1월호~2000년 12월호 까지 과월호 24권을 선착순 220분에 한하여 10만원에 드립니다.

명당 탐지기 - 관룡자

진산실업(주) (02)2264-0258 운세정보 800-8112. 주역점, 2001년 토정비결, 궁합, 꿈풀이 등 다양하고 정확한 내용. (전국 시외전화료 불요)
서울시 중구 광희동 2가 303-15 청옥빌아트 101호